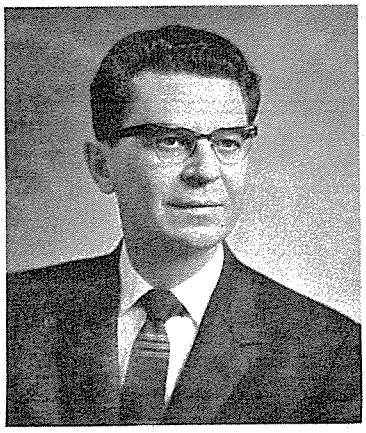
◆ 特別寄稿 ◆

地域社會 福祉舘 建立에 対하여

(Save the Children Federation/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SCF/CDF) 그 성격과 사업



Dr. Melvin E. Frrarey

지역사회개발아동복리재단은 비영리, 비정치, 비종파적인 국제민간 복지단체로서 한국동란 말기(1953년)부터 유엔기관 및 정부기관과 발맞추어 피난민과 미망인, 불우 아동들을 도와 주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500만불 이상의 원조금으로 10,000명 이상의 아동들의 학교 교육과 6,000건 이상의 가정 및 부락의 자조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발전 :

본 재단은 특히 농촌주민이 자조적인 노력으로 마을을 잘 살게 만들고져 하는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1957년 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사업을 지원 지도하여 그들의 창의와 협동심, 자주성을 개발하고 존엄성을 높이며 나아가서 경제사회적인 생활을 향상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 1973 회계년도에는 40만불의 지원금으로 잘 훈련되고 경험있는 지역사회개발조정관 및 개별 사회사업담당자를 포함한 16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경기, 강원, 서울 등 5개 시, 도와 2,300가정과 70여개 부락에서 각종 복지 활동과 개발사업을 지원 지도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운동"과 발맞추어 주민의 개발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개발과 관계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5개 대학의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사업 계통의 학생의 현지 실습도 지도하여 왔다. 지도력을 육성하고 주민들의 자조기술을 발전시키며 사업조직과 계획,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행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전자계산기에 의한 사업등록 및 보고제도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부락단위 사업에서 지역단위 집중지도 사업으로의 전환

이와 같은 본 재단의 노력은 근년에 이르러 발전하는 한국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에 맞게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연부락 단위 사업지원의 방향에서 몇개 인근부락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으로 당해지역 전체주민이 자조적으로 협동하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계획적인 개발활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본 재단에서는 1972년 말기에 3개 집중지역을 선정하여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이 다목적 집중지도사업은 선정된 지역사회나 집중지도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농촌이나 도시지구의 적당한 규모로 한정된 집단지역으로서 가능하면 타지역과 지형적으로 구별 되는 곳.

둘째 인구가 대체로 2,000~5,000 정도로,

셋째 지역의 모든 중요 계층으로 구성하는(즉 장년, 노인, 청년, 부녀, 교육자, 농민등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강한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넷째 지역 주민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인사로 주민들을 전정으로 대표하는 지역사회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실시, 평가 등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시설의 부족으로 부터 낙후한 생산수단에 이르기 까지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으로 자조개발을 위한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의 목표

1. 경제, 보건, 사회, 교육, 문화 및 환경적 제요인을 포함한 생활의 질을 개량하며
2. 지역내에서 다수인을 기초한 의사 결정, 지역사회 통제, 단체간의 협조 및 장기 개발계획 수립 능력을 포함한 지역사회개발과정을 자극 고무한다. 자조적인 개발을 위한 잠재력은 이 사업의 본질이다.
3. 사업과 재단활동의 가시성을 포함한 실제적인 전시효과도 노리며
4. 전통과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활동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집중지도사업은 그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언제나 지역의 본질적인 특성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삼각적 구성요소를 사업지역내에 설치한다.

1. **현지사업조정관**(재단 직원으로 현지에 상주한다)
2. **지역사회개발위원회**
3. **지역사회복지관**

이리하여 이 사업은 과거 자연부락 단위에서 소규모로 하던 것을 더 넓은 규모로 4~8개리(個里)를 하나로 묶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위에 열거한 삼각적 구성요소의 강력하고도 협동적인 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 실 본 재단에서는 한국정부에서 시작한 **"새마을 운동"**과 같은 사업을 과거 15년여에 걸쳐 400여 부락에서 실시하여 왔다. 이제 정부에서 전국에 걸쳐 "새마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으로 근면·자조·협동하는 정신 아래 주민들의 조직적인 자조개발사업은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집중지도사업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자연부락에서 인근부락으로 확대 연결되고 보다 큰 범위에서 협동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발전과정으로 민간단체나 정부의 지원활동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시도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년들어 정부에서도 새마을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2~3 마을이 한데 뭉쳐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재단에서는 이 집중지도사업지역으로 1972년 가을에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첫번 째 지역(Impact Area)은 강원도 춘성군 동면에 있는 6個里이고 두번째 지역은 양구군 동면에 있는 8個里이고, 세번째 지역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산북지역의 7個里이다. 이들 지역이 선정되면서 주민들은 자기에 대표자들로 지역사회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73년 4월 부터는 각종사업을 계획 실시하게 되었다. 계획된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관 건축이었다. 위 세

지역에서 각각 특색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지었는데 이것은 집중지도사업의 세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 중의 하나 이므로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기술해 보고져 한다. 복지관에 관하여 본 재단에서는 다음 몇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1. 지역사회 복지관은 사업지역내에 한 건물이나 몇개의 인접한 복합 건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다목적한 지역사회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사업조정관과 보조원의 활동 근거지로도 사용되며 지역사회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이며 그들이 사회시설사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서 수 많은 사업이 이 복지관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2. 복지관의 소유권은 지역사회개발위원회나 그와 관련된 법인체가 갖는다.
3. 복지관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와 건축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해야한다. 물론 외부의 건축기술자의 조언이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4. 가능하면 복지관을 건축하는데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것이며 건축양식과 실내 구조등은 그 지방의 문화 전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 런데 위에 열거한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점은 본재단에서 "복지관 건축"에 관하여 특히 중요시 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널리 권장하고 있다. 흔히 농촌사람들은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도시형의 건물 즉 그들 농촌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환경이나 문화 전통을 망강하고 도시생활을 동경한 나머지 맹목적으로 도시형건물이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그들의 환경에 맞고 그지방 고유의 문화 전통을 살리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여기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산북지역, 강원도 양구군 동면지역에 건립한 복지관을 살펴 보기로 한다.

산북지역은 앞에서도말하였듯이 7 個里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2,500이 넘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역단위의 큰 회의나 잔치, 예식, 교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뜻을 함께 하는데 있어서나 행동을 함께하는데 있어서나 그 기초적 단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만큼 집회소의 필요성은 큰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을 유치원, 공공도서실, 청소년 그룹활동, 부인활동, 노인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교육 기타 훈련을 위한 전당으로도 쓰여질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의 형태가 모든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는 본보기의 건물로 되어 있다. 총 65평의 한식 건물로 내부는 회의실 40평, 사무실 11평, 숙직실 4평, 취사실 3평, 별관 일부 7평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의 건축을 위해서 주민들은 대지 508평을 스스로 구입하고 연인원 1,200여명이라는 노력을 동원했는데 그것은 대개 하천에서 자갈 모래 호박돌 채취 및 운반 그리고 흙파기, 자재 운반 등이었다. 주민들은 공공건물인 복지관을 짓고 난 후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가져 보기는 처음이며 어디서도 이러한 공공회관 건물을 **가진** 곳이라고는 한국내에서는 없을 것이라고들 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집을 자랑하며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농촌사람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옥 다운 건물을 짓고 살아 보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며 언제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우리 전통적 건물을 실로 애호하며 값있게 사용한다.

강원도에서는 춘성군 동면과 양구군 동면등 2개 지역이 본재단 집중지역으로 선정되어 광범위한 복합적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구 동면은 휴전선 근방 최전방에 위치한 빈한한 농촌으로 700여호로 구성되어 있다. 1973 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중앙지에 2,503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25평짜리 복지관을 건축하였다. 한국의 전통성을 살려 호박돌로 벽을 만들고 한식기와로 지붕을 이은 이 건물에는 회의실과 사무실, 취사실, 목욕탕, 숙직실 등이 있고 책상 의자등 내부 시설도 되어 있다. 총 4백 여만원의 건축비중 277명의 노동력을 포함한 40여만원을 주민이 자담하였고, 재단에서는 3백 8십여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건물은 1. 회의실 등 공공의 모임 장소로, 2. 탁아소 등 어린이집으로, 3. 결혼식 등의 예식

장으로, 4. 주민들의 건전한 오락장소로, 5. 각종 기술 훈련 교장으로, 6. 그리고 지역 복지 행정을 위한 사무실과 상담실로 사용될 것이다. 이 전통성을 살린 건물은 주민의 자랑거리이며 누구나 아껴 쓰고 잘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복지관을 건축한 후 주민들은 그 옆에 30평짜리 공동작업장과 12평짜리 창고, 공중변소와 앞뜰에는 시이소와 그네등 어린이 놀이기구를 마련하여 다목적한 복지 센타로서의 면목을 갖추어 놓았다. 공동작업장에는 금년 1월에 장갑기계를 13대 구입하여 지방에 사는 젊은 여직공 20명을 훈련시켜 지금은 한 직공이 하루에 80 켜레를 짜내고 있다. 70만원의 자금을 들여 시작한 이 장갑공장은 연간 300만원정도의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며 주민들은 이 복합적인 다목적 복지센타를 통해서 사회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소득면에서도 지역주민의 활동 중심지로 되어 가는데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요사이는 매일같이 수십명씩 모여들어 작업도 하고 회의도 하며 뜰에서는 20여명의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며 지낸다.

이 지역의 개발 위원회에서는 주민활동의 중심적인 이 복지관 뿐만 아니라 8개 부락에 있는 7개 부락회관 운영문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각기 회관이 그곳 주민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갖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 집중지도 사업은 주민이 조직한 지역사회개발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복지관을 중심으로 재단에서 파견 된 조정관의 행정과 기술지도를 받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인 개발사업을 계획 실시하여 지역을 포괄적이며 다목적하게 발전시켜나가는 새로운 농촌개발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Dr. Melvin E. Frarey氏 주요경력

현직위: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 한국지회장 및 본부 사업부장

국 적: 미국

1954—1958 한국 한미재단 근무

1959—1962 한국 부흥부 고문관

1962—1963 한국 강원도 고문관

1963—현재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 근무.

주한근무연한: 20년 (54세)

주요사업 실적:

한미재단에서 사회사업가로서 불우한 아동들의 생계와 그들의 직업훈련에 종사했 음.

부흥부 고문관으로서 지역사회개발 지도사를 많이 양성했음. 그들의 훈련교재, 농촌지도의 기술 과 방법등을 연구하고 전국적 농촌개발사업을 연구함. 이 지도사들이 있음으로써 농촌 지도소가 생겼다.

강원도 고문관으로서 뒤떨어진 농촌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각종사업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기술 및 봉사활동의 기술을 가르쳤다.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에서

본부기획부장으로 4개의 지역사무실과 13개의 지회 사업을 통괄하고 그밖에 16개국 정부와 협약하에 후진지역의 개발에 종사하였다.

한국지회장으로서 매년 약 $380,000—의 지원금을 들여와서 한국아동 약 2,300명의 교육비지원, 가정자조사업 지원, 지역사회개발 공동사업 지원, 기타 재해복구지원등을 하고 있다.

산북지역복지회관

(새마을회관)

건 축 주: 산북지역복지위원회(지역주민자취 회)

건립후원: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 한국 지회 (C. D. F.)
물채취, 운반 기타 잡역(연1,200명)

위 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산북지역.

대지면적: 508평(6M도로옆 산언덕동향)

구 조: 호박돌조적벽, 한식계와 지붕.

연 면 적: 65평

공 사 비: ①지방주민부담(약1,068,400원)
② 후원자금부담(8,472,000원)

설 계 자: 신조건축연구소 대표 오 응 석
담 당. 송정호, 최희경.

설계일자: 1973년 5 월.

설계상의 특성:

1. 지역주변에서 구득할 수 있는 호박돌을 주자재로 사용하였으며
2. 지역주변의 풍치와 지역주민의 생활과 어울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식기와 집웅으로 설계하였음.

건립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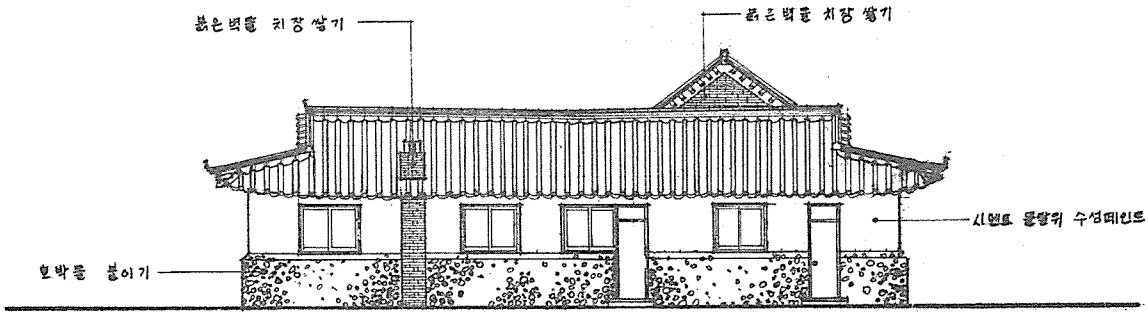
지역복지 활동을 위한 집회소, 유치원, 공동도서실, 청소년구룹활동, 부인활동, 노인활동, 기술교육 훈련, 결혼식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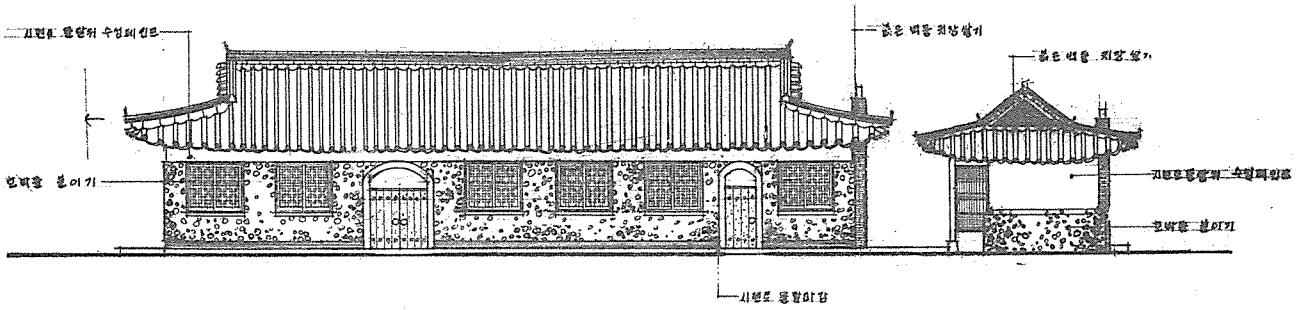
1973年 11月　경기도 여주군 산북지역 社会福祉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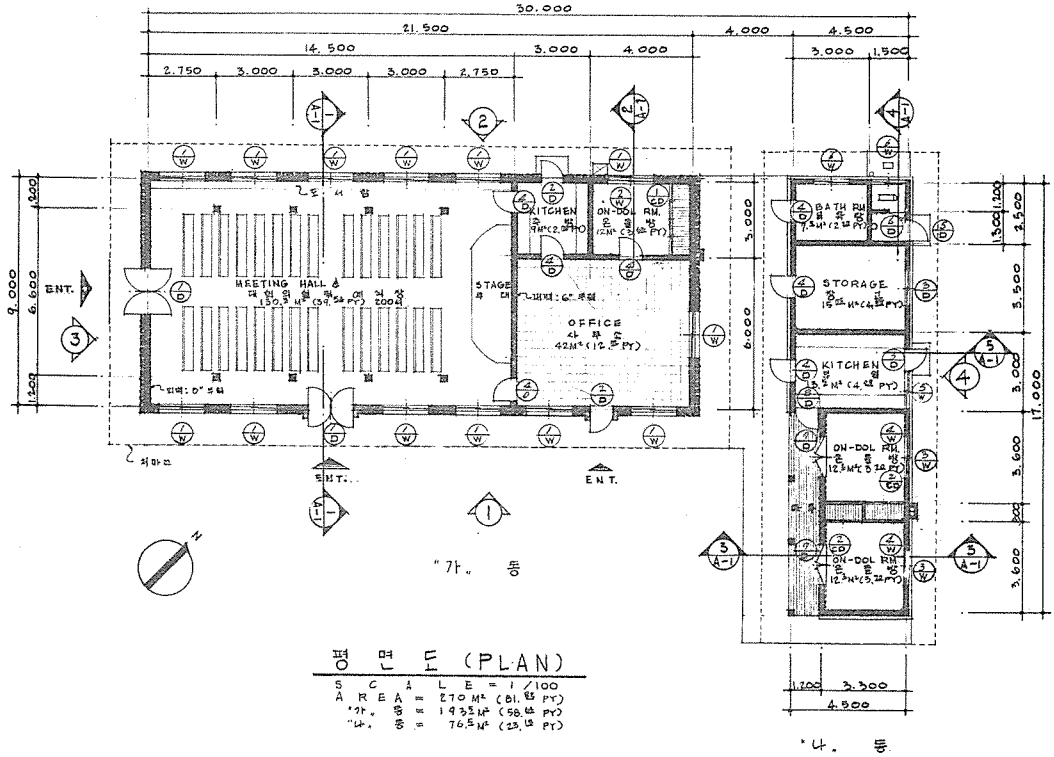
1973年 11月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建立된　福祉舘

建築材料는 그 地方에서 直接 채취했다.
호박돌을 채취하는 人夫들.

춘성복지회관







평 면 도 (PLAN)

S C A L E = 1/100
A R E A = 270 M² (81.6 PY)
"가" 동 = 193.5 M² (58.5 PY)
"나" 동 = 76.5 M² (23.1 PY)